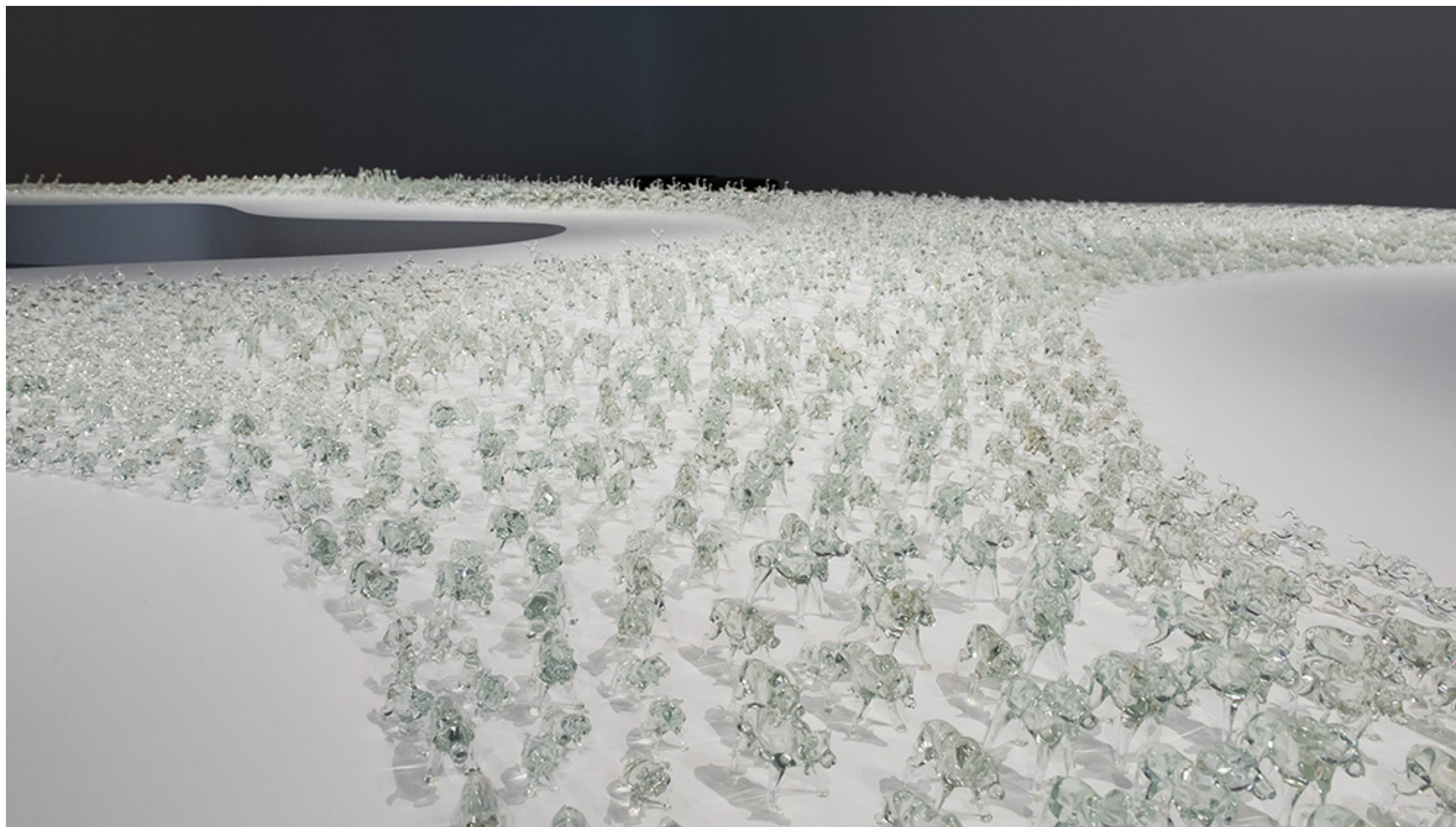


Brilliant Ideas Episode #39: 티파니 정

지도에 펼쳐는 역사와 문화의 레이어



몸으로 체감한 디아스포라



베트남계 미국인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티파니 정(Tiffany Chung)은 지도 작품으로 세계 예술계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태어났으나 베트남 전쟁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 후 캘리포니아에서 수학한 후, 다시 베트남 호치민으로 돌아온 작가에게 난민으로서 경험은 예술관 확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티스트이면서 리서처, 역사가이기도 한 티파니 정은 역사와 문화적 기억에 관한 갈등, 이주, 도시의 변화를 조사합니다. 캔버스 위에 수놓은 지도, 지도 드로잉, 설치, 비디오, 퍼포먼스 아트, 자수, 조각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현대 예술가 티파니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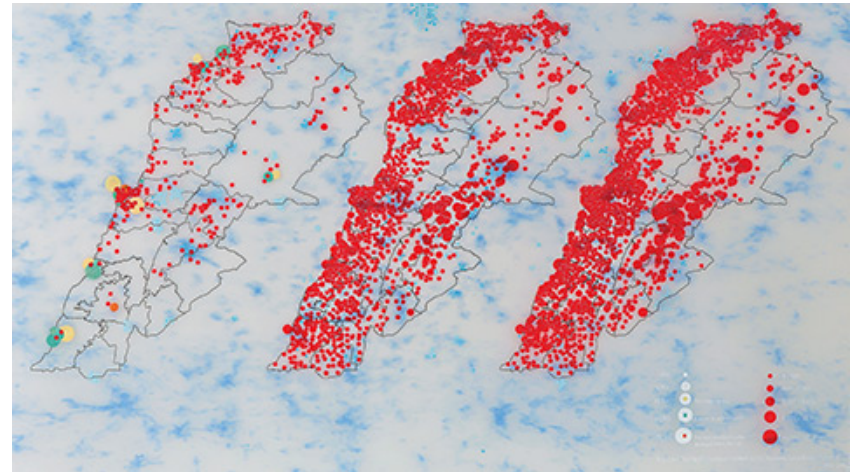
을 블룸버그와 현대자동차가 마련한 Brilliant Ideas 서른아홉 번째 이야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각도로 접근한 다양한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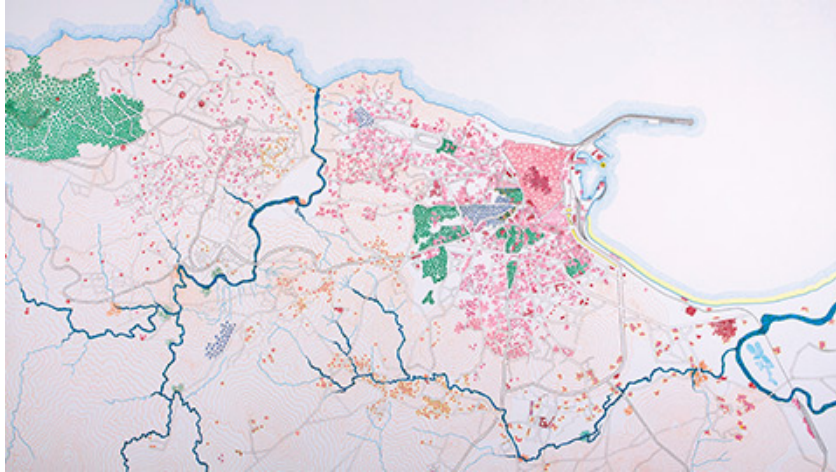


티파니 정은 자신의 예술을 표현하는데 다양한 표현방식을 택합니다. 멀티미디어와 혼합설치, 드로잉을 오가는 여러 매체 중에서도 특히 지도 드로잉이 그녀를 대표합니다. 티파니 정의 맵 드로잉은 대부분의 장소를 정확하게 지도처럼 표현하고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영하며, 황폐해진 지역의 지형도를 레이어 합니다. 또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근대성의 비전 사이의 연관성을 밝힙니다. 작품에 담긴 의미만큼이나 뛰어난 색감과 조형성을 지닌 티파니 정의 맵 드로잉은 역사적이고 지질학적 사건, 공간적이고 사회 정치적 변화와 리서치를 통해 예측한 미래를 함께 구성합니다. 지리학만큼이나 상상과 판타지 영역으로 작업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국제 조약과 현지 역사를 통합해 공식적으로 기록되기를 거부한 기억을 다시금 선보이기도 하며 역사와 문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레이어를 파헤치고, 장소의 연대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작성합니다.

어린 시절 베트남 전쟁과 미국 이주를 겪은 티파니 정의 작업은 역사와 문화적 기억과 관련한 충돌과 갈등, 이주, 도시 발전과 변화를 파고들어 조사합니다. 헬리콥터 조종사였던 작가의 아버지는 라오스에서 총에 맞아 잡혀 베트남 북쪽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녀가 직접 체험한 역사에서 오는 트라우마와 전쟁, 인간의 파괴 혹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상처 입고 충격을 받은 국가의 지리적 변화를 탐구합니다. 마을과 도시의 성장, 쇠퇴 또는 사라짐에 관한 티파니 정의 연구는 도시 개발, 환경 재앙 또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주제에 대해 파고들 때도, 그녀의 리서치와 작업은 역사적인 장소에 대한 언급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도 너머에 존재하는 것들



지도 작업 외에도 '2011 싱가포르 비엔날레(Singapore Biennale 2011)'에서 선보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상 가옥(물 위에 지은 집)에 관한 프로젝트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티파니 정은 메콩 강 유역 하단에 있는 국가에서 2050년 극심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언론의 과도한 보도에 대한 응답으로 '떠다니는 삶'을 삶의 방식으로 하는 '대안 도시(alternative urbanism)'를 만듭니다. 베트남 메콩 강 선상 가옥과 익숙해지려, 작가는 또 다른 해안가 선상가옥 지역인 캄보디아 톤레사프 호수, 베트남 하롱베이, 태국 상클라부리, 인도 스리랑카, 미국 소살리토, 일본 아마구치 전통 농가의 주택방식과 건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수상가옥의 토착적인 건축 디자인을 변형하고 조합해 새로운 마을이 탄생했습니다.

호주 캠벨타운 아트센터(Campbelltown Arts Centre)의 도움으로 완성한 작업 <The River Project>(2010)은 아시아 태평양 강 시스템에 관한 작품입니다. 메콩 강이 그 주변 지역과 지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합니다. 마이크로-피그먼트 잉크와 유화로 그린 각 지도는 모조피지와 종이라는 두 개의 레이어로 완성됩니다. 또한, <Dubai, 1973>(2010)처럼 과거와 미래를 비교해 지도에 담기도 합니다. 1973년 두바이 지도와 2020년의 두바이를 예측한 지도 <Dubai, 2020>(2010)을 함께 보여줍니다. 당시 2020년 모습을 담은 두바이 지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작가는 베를린에 있는 자신의 리서치 팀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 계획과 제안을 예상해 도시 포맷을 만들어내 하나의 위성 이미지로 재탄생 시켰습니다.





모든 디자인에서 생태 건축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빗물 추수, 전기 미사용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각 사례를 가져와 혼합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상상의 떠다니는 마을은 1:50 배율로 전시장 천장에 매달려 마치 실제로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작가는 이 작업을 통해 앞서 언급한 생태건축학의 요소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튼다. 그동안 티파니 정은 이처럼 지역과 역사를 여러모로 분석하고 살펴보는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지역과 문화의 충돌과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은 아티스트로서 다양한 발판이 됐습니다. 작가가 만들어내는 지도는 단순한 지형도를 넘어선 그 이상의 것을 관람자에게 소개합니다. 앞으로 티파니 정 의 예술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너머 어디까지 확장할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 with ARTINPOST



<Hiroshima> 2010

Embroidery, metal grommets and buttons on canvas 110×82cm

Profile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티파니 정(Tiffany Chung)은 베트남 전쟁 후 미국으로 이주한 디아스포라 중 한 명입니다. 어린 시절 이민한 까닭일까요, 그의 작품은 충돌, 이주, 도시발전, 역사와 문화적 기억에서 비롯되는 변화와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수놓은 캔버스 지도, 지도 드로잉, 비디오, 퍼포먼스, 설치 등 다양한 표현 방식 중에서 특히 지도 드로잉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층으로 완성된 지도 드로잉은 각 레이어마다 황폐된 지역에 관한 독자적 역사를 담아내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 완벽하고 정확한 지도 제작이란 불가능하다는 주관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969년 다낭에서 태어난 티파니 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 캠퍼스(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에서 사진을,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타바버라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에서 스튜디오 아트를 공부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 고국의 수도 호치민으로 돌아와, 이곳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히타치 시티 뮤지엄(Hitachi City Museum, Ibaraki), 타일러 롤린스 파인 아트(Tyler Rollins Fine Art, New York), 갤러리 크리스티안 호프(Galerie Christian Hosp, Berlin), mc2 갤러리(mc2 Gallery, Milan)를 포함한 각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세계 미술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